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2월 20일
제1884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703 968 3010　　팩　　스: 703 968 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루카 6,36-37)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김순옥 수녀 作

연중 제7주일 (다해)

제 1 독 서 **1사무 26,2.7-9.12-13.22-23**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 주셨지만, 저는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 답 송 **시편 103(102)**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15,45-49**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　　음 **루카 6,27-38** |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을 듣고 있으면,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怨讐)란 자기나 자기 집안에 어떤 중대한 해를 끼쳐 깊은 원한이 생긴 사람을 뜻할 텐데,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까지는 해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 사랑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니신 자비와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곧 하느님께서 그러하시기에 그분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 자체로 정의한 요한 서간의 저자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께서 본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비와 사랑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계명들은 사실 '하느님'의 행동에서 그 주체가 '우리'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께 원수와 다름없는 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계명은 당신 자녀들이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호소인 셈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고 또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으려는 자녀의 노력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우리의 사랑을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나무만큼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Bishop's Lenten Appeal) 지원 프로그램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1월 우리 교구는 황금 희년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해의 주제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며 성찬례에 초점을 둡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선물로 성숙되어진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비롯된 풍성한 은총의 반영으로 올해 BLA를 약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시는 BLA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알링턴 교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목활동에 활기를 더하며, 우리 교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모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머무시길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링턴 교구장 마이클 버빗지

Michael F. Burbidge

목적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지원 프로그램은 교구 내의 모든 신자들이 사순 시기에 절약하고 절제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신앙 및 영성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BLA를 통한 모든 기부금의 100%는 아래에 설명된 프로그램 및 사역만을 위해 교구 내에서 사용됩니다.

- 18% 성소 및 신학생 / 수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 12% 교구 내의 모든 가톨릭 성당 및 선교 단체 지원
- 11%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 자선단체 및 자선 활동 지원
- 11%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 12% 가톨릭 학교 및 종교 교육 프로그램
- 10% 다문화 프로그램 및 교구 발전 프로그램
- 9% 도움이 필요한 가족 및 임산부 지원 (생명 수호)
- 17% 기타(버지니아 가톨릭 회의, 복음화 활동 : INOVA 병원, 평화 정의 위원회 등 지원, 교구 및 본당 재산 및 토지관리)

※ BLA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링턴 교구 웹사이트 www.arlingtondiocese.org/bla/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묵상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김옥순 수녀〉

1 나눔 실천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나눔 실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환경이 어려운 이웃 본당에 전달됩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2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61,000입니다.
- 나누어 드린 봉투에 약정하시어 나가실 때 로비 BLA함에 넣어주세요.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3 2022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2,3학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월 20일(일) 오후 2시 / zoom으로 진행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 275-0691

4 2022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추가 모집

- 모집 과정 : 신구약 입문 2년 과정(우편통신/이러닝)
- 신청 마감 : 2월 28일까지 연장

5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2월 26일(토) 오후 8시 / zoom으로 진행
-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6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27일(일) 오전 11:30 (나눔터)
- 문의 : 김 안드레아 (703) 517-1574

7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안내

- 일시 : **3월 2일(수)**
  오전 10:30 십자가의 길
  오전 11:00 재의 예식과 미사
  오후 7:30 재의 예식과 미사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본당 입구 수거함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금육제를 겸한 단식제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참조).

8 주일학교 성사반 모집

- 모집 대상 : 첫영성체반 (3-5학년) / 견진성사반 (7-12학년)
- 수업 일시 : 3월 2일 (수) 오후 7:30 첫 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문의 : spc15.re.admyc@gmail.com

• 3월부터 모임 재개 •

3월부터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당분간 미사와 모든 모임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CYO WorkCamp Contractor 모집

-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인원 : 3명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10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주님수난 십자가의 길에 봉사해 줄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 가족이나 구역, 단체 단위로 **3명씩 짝을 이루어 십자가 1명, 초 복사 2명**을 선정하여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 지침

1.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2월 13일(연중 제6주일)

주일헌금	$ 5,393.00
교무금	$ 7,270.00
교무금(신용카드)	$ 1,900.00
감사 헌금	$ 740.00
온라인 봉헌	$ 6,630.00
합계	**$ 21,93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월 17일(목) 오후 5:00-6:00
2월 18일(금) 저녁 8:00-9:00
2월 20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황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 골프선수 이보미 글라라, 탤런트 이완 다니엘의 소소한 행복 샷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